



영란은행, 보험회사에 대한 그림 자금융위기 경고

오병국 연구원

-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은행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면서 당국의 감독이 미치지 않는 그림자 금융(Shadow Banking)산업이 오히려 성장하고 있음.
 - 전통적인 은행 부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위험한 투자를 추구하는 그림자 금융 시장 규모가 양적으로 성장함.
 - 그림자 금융은 당국의 규제나 감시가 미치지 않아 거래 내역이 잘 나타나지 않으며, 주로 헤지펀드, 사모펀드, 구조화된 투자회사 등을 통해 거래됨.
 - 2012년 2월 그림자 금융 시장의 규모는 은행 시장 규모의 절반에 해당하는 60조 달러에 달함.¹⁾

- 한편, 영란은행 폴 터커 부총재는 런던 보험인모임에서 금융시장의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림자 금융 위기의 방지를 위해서 보험사의 대출증권 거래에 대한 글로벌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.
 - 폴 터커 부총재는 2008년 AIG에 대한 미국정부의 구제금융 사태를 언급하면서 그림자 금융시스템에 의한 투자의 위험을 상기시킴.
 -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들이 AIG가 발행한 CDS(신용파산스왑)에 과도하게 투자한 후 손실을 입어 금융시장이 큰 혼란에 빠졌음.

- 이와 더불어 폴 터커 부총재는 거래정보저장소(trade repositories)의 설치가 그림자 금융시장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.
 - 거래정보저장소의 설치로 보험사의 대출증권이 여러 기관에 동시다발적으로 거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임.

1) 로이터통신(2012. 2. 7).

- 폴 터커 부총재가 거래정보저장소 설치를 위해 노력한 일과 현재 국제지급결제시스템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, 거래정보저장소 설치에 관한 그의 제안이 국제적인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보임.

(Financial Times, 3/13)